東大新聞

發行人 鄭斗石 · 編輯人 · 主幹 大康元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1685 1686 3611

(週刊) 六個月分·200원

今一週의 言

어느時代에나 그 각각의 課題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人類는 進步한다

—하이네—

第三回東國祭典

아늑한 詩情속에 피날레 裝飾

벅찬 캠퍼스에 五月의 意慾을 繡놓아

創造에의 意慾에 벅찬 第3回「東國祭典」은 1日宣誓式으로 幕을올려 連4日동안 盛況을 이룬끝에 4日밤「文學燕」詩의밤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大團圓의 幕을내려 內外의많은 關心을 集中시켰다 힘찬 來日의前進을 約束하고 學究的발판을 더욱 굳건히한 이번第3回「東國祭典」은 既報한바와같이 첫날의 豪華로운日程을 마치고 다음 2日에는 英文學심포지움, 林學講演會, 農漁村奉仕實況 사진전시회, 탁본및古蹟사진전시회가 열렸다。3일에는 全國中·高·大·一般·軍警雄辯大會가열렸고 4일에는 아침10시부터 밤10시30분까지 全國大學生國際問題討論大會, 男女高校文學콩쿨, 東國文學燕의 國語國文學講演會, 現代文學심포지움 詩의밤이 연이어 열려 祭典의 마지막날을 뜻있게 장식하였다

觀客들興에 겨워 歡聲

詩의 밤엔 二千餘名參集

辛夕汀·趙芝薰·李東柱·丁益燮·李鐘出同門등도參加

國語國文學會와 東國文學會가 主催한 「東國文學燕」은 一日의 詩畫展開幕에이어 四일 同門및 二千餘文學同好人이 雲集한속에 國語國文學講演會 「現代文學심포지움」「詩의 밤」으로 끝을 맺어 傳統깊은 東大文學 50년을 자랑한 「詩의밤」이 끝나고 來日의 힘찬 前進을 약속케했다。

一日 畫展 및 講演會 東國文學燕 幕 祝祭로 들뜬 五月 캠퍼스를 뒤엎었으며, 詩情에 젖게 하였으며, 지난 一日 鄭里에서 「文學燕」을 맞이한 캠퍼스는 멀리 라이 동공도 찾아, 마치 壇의 四 第一回 全國男女高校生白日場이 빛속에 擧行된 이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校庭에 設置된 二時半부터 「東國文學講演會」가 多數의 來賓과 文學徒들이 參席한 가운데 「東國文學燕」의 세컨드·테프를 끊었다。金起東同門(本校敎授)의 司會로 시작된 國語國文學講演會는 梁柱東博士(大學院長)의 祝辭에이어 同門敎授 研究論文이 朴鍾和氏의 祝辭에 이어 「韓國現代詩의 當面課題」라는 타이틀아래 趙芝薰同門과 李哲範同門의 講演이있었다 文學燕의 마지막프로는 中央女高管絃樂團의 연주가 은은히 울려 二千餘同好人이 參席하여 幕을올렸다。李愚碩 司會로 시작한 「詩의밤」은 崔載福同門의 「詩人의 生涯」 李東林同門의 「訓民正音」 李丙疇同門의 「音母音攷」 等 韓國漢文學上의 杜詩 問題點 鉉利하게 파헤쳐 現代文學講演會로 들어갔다。 곧이어, 校敎授·詩人) 의 司會로 시작된 現代文學講演會가 多數의 祝辭에 이어 「韓國現代詩의 當面課題」라는 타이틀아래 趙芝薰同門과 李哲範同門의 講演이있었다 文學燕의 마지막프로는 中央女高管絃樂團의 연주가 은은히 울려 二千餘同好人이 參席하여 幕을올렸다。李愚碩 司會로 시작한 「詩의밤」은 崔載福同門의 「詩人의 生涯」 李東林同門의 「訓民正音」 李丙疇同門의 「音母音攷」 等 韓國漢文學上의 杜詩 問題點 鉉利하게 파헤쳐 現代文學講演會로 들어갔다。 곧이어, 徐廷柱 同門 (本

社說

東國祭典의 評價와 反省

—第三回 東國祭典을 보고—

盛況을 이룬 가운데 幕을 내렸다. 지난 一日의 佛誕慶祝 紀念式에 이어 開催된 이번 祭典은 지난날의 散漫하고도 低調했었던 祭典에 比하면 分明히 새로운 轉機가 되리라 믿는다. 特히 行事의 規模로 一、二回때 보다는 集中的으로 크게 엮어진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

사실 大學生은 理念에 充滿한 行動과 『빛나는 세 歷史의 創造』와 벅차기만 한 浪漫속에서 사는 世代이다. 그래서 그들의 行動은 熱情的이며, 潑潤하고도 淸新한 知性이 强調되는 것이며 不斷한 學究的 精進만이 負荷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새 歷史를 向하여 불굴의 조용한 絶叫와 摸索하는 不眠의 姿勢가 要請됨이 이러한 大學의 祭典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中心이 되어 主管하는 大學生들이 큰것이다. 곧 學生스스로가 自己를 發見하려는 努力과 自己를 充實하게 表現하려는데 그 意義가 있게 된다.

혼히 現代敎育의 目標가 集團生活속에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人格陶冶와 人間形成에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人格陶冶와 人間形成에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學生들의 課外活動은 스스로 集團生活속에서 닦아 온 力量과 人格의 評價를 얻는 機會가 되는 것이다. 앞서 指摘한 自己發見에의 努力과 自己 表現에 大學祭의 意義를 찾으려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그 理由다.

첫째, 이번 祭典의 所優를 몇가지 간추려 보고자 한다. 漫然이었다. 集中的 綜合的이었다는 점에 서는 規模가 없기 때문이다. 爲校的인 祭典이 되려면 적어도 三、四個月前부터 檢討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번 計劃案이 세워져 充分한 檢討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번 祭典의 弱點은 그 計劃의 散漫함이었다. 一個月內外 부터 몇개의 種目을 골라 程度的 評價 밖에는 點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主管하는 것이 少數學生의 專實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祭典은 一部學校의 祭典이 되어 그 計劃 檢討를 거쳐 서 行事마다 서툴렀던

비오는 날

洪晴子

小說部當選作

「선생님! 제발!…」 가지마세요 하고 비켜요!」 영주는 아무말없이 눈에는 눈물이 떨어졌다. 「아! 또 꿈이었구나」 영주는 부시시 두 눈을 떠 보니 그 옆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얼굴을 본 순간, 벌써 알고 있었다! 허지만 말할 수 없었지…」 영주는 어디 계셨어요?」 기쁘고 반가워서 영주는 정그렇지도 않았다. 바로 선생님이었다. 영주가 존경하고 따르던 도 아까 꿈을 꾸던 중학교 3학년 때의 담임이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양이었다. 얼굴이 싫다 고 도망을 가고 나는 떠들어다니는 몸에는 아니면 오는 날이나 밖으로 「선생님!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영주를 많이 생각했지 그렇지만이 곳을 지날때. 영주를 보아도 모른척했어요」 영주는 대답할말을 찾지못했다. 퍼붓면비가 이제는 가랑바로 보내었었다. 영주는 산 가겠다고 거절하는 선생님을 억지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아! 오늘의 이 비는 내게 어떤 계시를 주려는 것인지도 돌아오는데서 영주는 몇번이고 이런 생각 되풀이했다. (漢城女高)

小說部當選作

音樂散策

聲樂의名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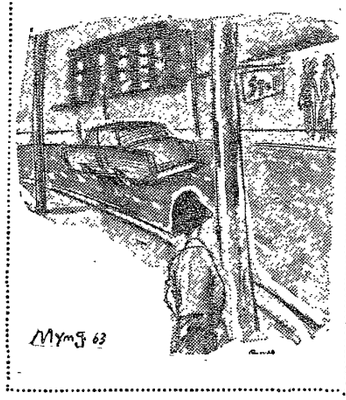
「스와니江」「홈·스윗·홈」「산타루치아」

藝術歌曲으론 「들장미」도 아름답고

할랑한 民謠曲들

…… 六百을 넘는 많은 歌曲을 作曲했는데 有名한것으로 「거울나그 「아름다운 물결 「白鳥의 노래」라는 여러 曲으로 된 歌曲集이 있는데, 이 속에서 特히 有名한 노래가 가장 잘 알려졌는 것으로, 「물결 미」「들장미」라고 불리우는 歌曲인데 슈우베르트의 歌曲인데 이것을 「리이드」라고 한다. 이것은 「들장미」는 大文豪 괴테의 詩에 붙인것으로 괴테 의 어린 아름다운 슬픔을 쩎은 역시 曲이다. 「魔王」은 무심코 얼굴을 없었다 들어 주인 그 사람의 보낸곳 손에 그 마침 반갑게 있다. 저 점은선 (어머나! 저 손에 있던 바 생님의 그 점이다) 로 깍 깍 똑똑히 놀라 살 城을 뚫는 한 예쁜백시 순옥의 깜짝놀라 앞에 넘겨다 반에서 가장 잘사는 순옥의 가 점 달이라는 경숙이 눈길로웃 음을 경멸의 「어머니고 있었다 걸어가는 한대가 딱한 순옥은 이렇게 「체! 돈있다고 구나. 돈없는 하니 분하고 얼굴 서로 한꺼번에 터지는 제는 여러분은 이 경숙의 친구로서 명랑을 빌어 가겠읍니다」 앞이 감칼해지며 순옥은 앗찔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죽었다고 경숙이 내가 죽으라고 한 거야. 경숙아…미안해 죽으라고 경숙아…으흐흐 흥…흐흑…」 쟁피한줄도 모르고 순옥은 막울어댔다.

席作一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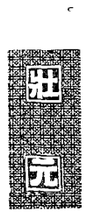


비오는날

김윤수

…… 이선생이 오늘은 어니때와달 이 경숙의 친구로서 명랑을 빌어 가겠읍니다」 앞이 경숙의 순옥은 이렇게 생각했다. 「체 돈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죽었다고 경숙아 미안해 흥…흐흑…」 쟁피한줄도 모르고 순옥은 막울어댔다. 그날도 온종일 비 오는거리를 밤늦게서 돌아다니다 그 날에는 경숙의 무덤에 꽃을 한아름 꺾어 가지고 그 날 순옥은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그 때 순옥은 이 한번 꺾었던 목숨을 다시 살려 간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자 다 왔읍니다. 이제 기특해서 웃기만 하는 경숙이 생각이 나겠지. 내년봄비오는 날에는 경숙의 무덤에 꽃을 꺾어 가지고 있었다. 이제 비오는날이면 언제나 경숙이

사과의 靜物



부산 배정고 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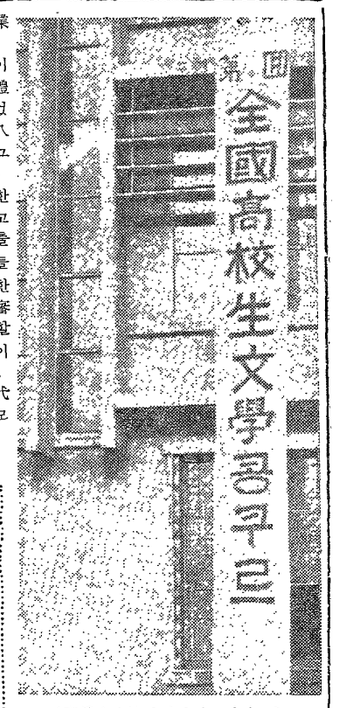
사과를 깎으면
地球가 둥글다。
사과의 속살 위에서
풍요한 우리의 先祖들은
땅 속에 바다를 심고
바다 속에 땅을 깎고 있다。

여태도 하늘의 重量은 더 늘지도
줄지도 않은채 나의 피 속에、눈 속에 머물고
발바닥이 땅에 닿지도 않는 나는
여름 날 새로 신발처럼 산뜻한 사랑을
갖지도 못하고 뿌리가 없는 나무의 마음씨에
그저 건성으로 꽃을 피우다가
꽃잎과 줄기와 어쩔 전부를
주어버렸다。

사과를 물고
차마 눈 속에 날을 수도 없는
사과를 물고
나무로 살지도、그렇게 歷史처럼
잠잠할 수도 없어서
대략의 줄거리만 包裝해서
小包로 부쳐두고
차마 서운할 수 없는
그리고 아직도 기적이 던져주는
붉은 엣센스와 초라히 마주 앉은 나를
빨간 사과의 껍질로 감아 본다。

사과를 깎아 보면
地球는 둥글고
그 둥근 地球의 表面과
表面이 차지하는 內面위에서
여태 손을 펼쳐도 더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하늘 속에 눈이 빠지고
눈이 빠진 사과의 씨앗을 허물 없는 웃음으로
가슴에다 날리는 내가 머문다。

○…本社에서 마련한 三大社業
○…의一環으로서 지난 四日,
○…「全國男女高校生白日場」이
○…봄비내리는 가운데 第一證
○…育館에서 盛大히 學行되었
○…다。一次豫選에서 合格된八
○…十餘 文學徒들이 各己 그
○…쌓아온 實力을겨루었는데,
○…이날 榮譽의 入選者들은한
○…아름의 賞狀과 賞品을안고
○…시종 흥안에 미소를 감출
○…줄 몰랐다。中央의 學生들
○…보다 地方學生들이 월등한
○…實力을 나타 내었으며, 審
○…査委員들은 將來를 期待할
○…수 있는 훌륭한 作品들이
○…었다고 審査所感을밝혔다。
○…봄과 더불어 탄생한 十代
○…文學徒들의 作品을 한데모
○…아特輯을 해보았다。
(編輯者註)



<寫眞 本社에서 세워진 프라카드>

審査委員 名單

◇詩 部◇
徐廷柱 (同門·詩人)
章湖 (〃 〃)
◇小說部◇
郭夏信 (同門·小說家)
李丙求 (〃 〃)
◇隨筆部◇
鄭泰鎔 (同門·評論家)

評査審部詩

찬찬한 知慧의 作業

徐廷柱

白日場의 作品을 보면 全國男女高等學校의 學生 審査委員全體의 一般的인 評價로 보아 이번 白日場에 提出한 作品은 그 數量에 있어서 充足한 情緒의 作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質에 있어서 一般的인 精神의 作業이 아니라 그것은 放即後的인 興奮이나 解放的인 오랜 相當히 오랜 表面的 彷徨에 本 大學 應募한 今年 度 白日場 施賞式 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審査委員 全體의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이것은 느낌을 달하는 것은 喜樂 樂해하면서 나는 많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作品들에 있어서 이미 찬찬한 知慧와 充足한 作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作品들은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歷歷히 있는 것이다 이 作品들은 어떤 일관된 無自覺한 一部 어떤 이른바 生涯를 자각이 새로 한 피우는 世代에 對한 느낌 결여한 믿음직한 어나는 것이다

評査審部隨筆

조촐한 情感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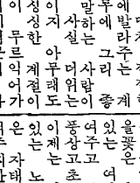
鄭泰鎔

主催側의 選을거쳐서 보내온 것 나 豫 이었다。 그중에서 오 十二篇이었다。 이에게 佳作 努力들을 하 김창구、유인서、김채훈 순의 것이 좋았다 이번 그 審査는 各以前 採點 作品과 그 作品을 提出한 作品의 點數로 부탁한 것을 말해둔다 (同門·詩人·文理大敎授)

評査審部小說

豐富한 構想力에 놀라

郭夏信



(同門·小說家)

次上點

부산 고교 하일

그날、나는
그 속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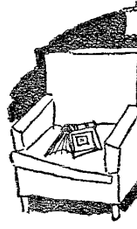
깜장이
깜장 속에서
미쳐 돌아 나온후
웃음이 濁濁 하는
그 지점에 서서
두수히 이울져 내려는
화안한 꽃보라의
行列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고요를 넘어 선 고요가
바늘 귀 만큼 내려는
차지한 그의 領域 에로

凝結 되어 오고、
기다림에 그의 노래는
영글은 동그라미가 되어 가고…。
그렇게 그 속에서
나는 깃욕의 亂舞를
평화로운 찾고 있었다。

분명、나는
그 속에 있었다。

1963·5·4



內 사랑하는 꽃

서울 고교 김창구

原稿募集

本社에서는 隨時로 在學生의 玉稿를 募集하고 있읍니다。 뜻있는분의 많은 投稿를 바랍니다。

東大新聞社

宮選作

길

南女高 吳順喜

終地없는 旅行

韓龍 作 吳明 哲 畵

一潮閣 發行 新刊

民主政治에의 길 — 高麗大學校 總長 俞鎭午 著 菊判 290面 값 250원

改訂 商業經濟學 — 慶熙大學校 政經大學長 權五翼 著 菊判 434면 값 300원

市場配給原論 — 成均館大學校 商大敎授 具河書 著 菊判 292면 값 250원

經營管理論 — 中央大學校 經商大敎授 金元卿 著 菊判 280면 값 250원

產業心理學의 實際 — 職場人事管理의 合理的基調 — 漢陽大學校 工科大敎授 李根熙·姜錫仁 共著 菊判 252면 값 230원

改訂 商業簿記 — 李海東 著 文理大敎授 金鵬九·吳鉉壎 共著 梨花大學校 文理大敎授 李鎭求 外大 敎授 朴恩愛 菊判 352面 값 300원

佛文學史 — 文理大敎授 A·마르띠네 著 菊判 452面 값 350원

言語學原論 — 文理大學校 敎授 金芳漢 譯 菊判 248面 값 230원

季節의 香氣 — 金亨奎 隨筆集 洋·菊判 224面 값 180원

總販 一文社 振替 서울 四二五番 電話 ③ 天光·吳芳善

誌養敎 의 一唯敎佛

佛敎思想

(第十四號)

主要目次

禪學史……權相老
한백사상……安浩相
東洋佛敎徒에게보내는公開文……메리·할로우
이스람敎思想略史……張吉秉
精神醫學的佛敎觀……鄭在赫
新羅僧侶들의印度巡禮……柳洪烈
俱舍學講義……金東華
禪學講座……李行頴

임시連絡處 東大構內 인쇄소옆 佛敎思想社